빚없던 가구 30%, 2년새 '빚 수렁' 속으로

부채 1억원 이상 가구 75%가 1억원 이상 계속 유지 소득 1~5분위간 이동 극소수 '부익부 빈익빈' 여전

2년 전 빚이 없던 가구 가운데 30%는 올해 빚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른 계층에 비 해 최저소득층과 최고소득층의 계층 이동은 활발 하지 못한 모습을 보였다.

◇ 2년전 부채 1억원 이상 가구 중 75%, 올해 도 1억원 이상 빚=통계청이 지난 5일 발표한 '가 계금융·복지조사로 본 가구의 동태적 변화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12년에 부채가 없던 가구 중 올 해 부채가 있는 비율이 30%에 달했다.

통계청은 정부정책 등이 특정가구에 미치는 영 향을 파악하기 위해 2012년부터 올해까지 가계금 용·복지조사에 모두 응답한 가구(1만6천973가구) 를 대상으로 1차년(2012년) 이후 3차년(올해) 변

그 결과 2012년에 부채가 없던 가구 중 올해에 도 부채가 없는 비율은 70%, 있는 비율은 30%로 나타났다.

2012년에 부채가 있던 가구 중 올해에는 부채 를 모두 상환한 비율은 16%, 부채가 남아있는 비 율은 84%로 집계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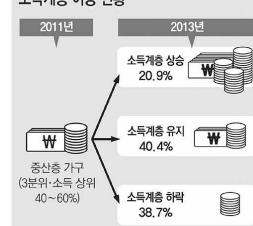
특히 2012년에 부채가 1억원 이상에 달하던 가 구 중 올해에도 1억원 이상이 유지된 비율은 75. 5%나 됐다.

금융부채만 놓고 보면 2012년에 부채가 없는 가 구 중 올해도 부채가 없는 비율은 73.5%, 새로 발 생한 가구는 26.5%다. 금융부채의 경우 2012년에 부채가 있는 가구 중 올해 부채를 모두 상환한 비 율은 19.6%, 부채가 남아있는 비율은 80.4%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60세 이상은 2012년 '부채 없음'에서 올해 '부채 있음'으로 변경된 경우가 15. 8%, '있음'에서 '없음'으로 바뀐 비율이 22.2%다.

2012년에 부채가 없다가 올해 있는 비율은 39 세 이하가 41.9%에 달했지만 40~59세 38.9%, 60 세 이상은 15.8%로 연령이 높을수록 낮아지는 경 향을 보였다.

가구주가 60세 이상인 중산층 가구의 소득계층 이동 현황



통계청 관계자는 "40세 미만이 부동산 거래나 생활자금 마련 때문에 상대적으로 많은 빚을 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종사상 지위별로 보면 2012년에 부채가 없다가 올해 있는 비율은 상용근로자가 40.7%로 가장 높 고 자영업자(37.4%), 임시·일용근로자(27.3%) 등 의 순이다.

◇소득분위 유지비율 57%…자산분위 유지비 율 69%=2011년의 소득분위가 지난해에 유지된 비율은 57.7%, 상승·하락한 비율은 각각 21.2% 로 나타났다. 통계청은 부채에 대해서는 조사연도 의 수치를 조사하지만, 소득과 관련해서는 전년 도 자료를 분석한다.

소득분위는 20%씩 구분되며 1분위는 '하위 20%, 5분위는 '상위 20%'에 해당한다. 2011년 소 득분위가 2013년에도 유지된 비율은 1분위와 5분 위에서 각각 75.9%, 71.2%로 다른 분위보다 상대 적으로 높았다. 부자는 여전히 부자고, 가난한 사 람은 여전히 가난한 경우가 많다는 의미다.

2011년 '빈곤함'에서 올해 '빈곤하지 않음'으로



2년 전에 빚이 없던 가구 가운데 최근 새로 부채가 발생한 비율이 30%나 되는 것으로 조사되면서 가계 의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바뀐 빈곤탈출 비율은 34.6%로 같은 기간 '빈곤하 지 않음'에서 '빈곤함'으로 바뀐 빈곤진입 비율(7. 4%)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빈곤함의 기준은 중위소득(2011년 연소득 2천 24만원, 지난해 2천240만원)의 50% 미만이다.

가구주가 비취업에서 취업한 경우 빈곤탈출률 은 40.0%, 취업에서 비취업으로 바뀐 경우 빈곤진 입률은 31.6%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2011년 소득 분위가 2013년에 유지된 비율은 가구주가 60세 이상인 경우 66.7%, 40~59세 55.6%, 39세 이하 52.4% 등으로 젊을수록 소득 계층 이동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한 해 라도 빈곤을 경험한 비율은 25.1%다. 2012년의 자산분위가 올해에 유지된 비율은 69.2%고 상승· 하락한 비율은 각각 15.4%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연합뉴스

카드사들 휴면 신용카드 해지 막으려 '꼼수' 블랙프라이데이 직구 이용

미국 최대 규모의 쇼핑일인 블랙프라이데 이 당일 국내 30대 초반 여성의 해외직구(직 접구매) 이용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 다. 당일 해외직구 이용고객은 11월 전체 해 외직구 이용고객의 약 10%에 달했고, 이들은 주로 미국 인터넷 쇼핑몰인 아마존(Amazon) 을 이용했다.

7일 KB국민카드의 빅데이터 분석자료에 따르면 블랙프라이데이인 지난달 28일 KB국 민카드의 해외직구 이용고객은 약 7000명으 로, 11월 전체 해외직구 이용고객(7만2000명) 의 9.8%를 차지했다.

당일 해외직구 이용금액은 11억2000만원 으로, 11월 한 달간 총 해외직구 이용금액(156 억원)의 7.1%로 조사됐다. 이용금액은 2년 전 인 2012년(3억4000만원)보다 3.2배 늘었고, 고객 역시 2년전(3000명)의 2.3배 수준으로

30대 초반 여성 가장 많아

블랙프라이데이에 대한 관심은 남성보다 여성이 높았다.

11월 한 달간 해외이용 고객은 남성 57.4%, 여성 41.3%(외국인 1.3%)였다.

그러나 블랙프라이데이 이용고객은 남성이 54.5%, 여성이 44.4%(외국인 1.1%)로 여성 비율은 3.1%포인트 상승, 2.9% 내려간 내려 간 남성과 대조를 보였다.

연령대별로는 30~35세 남성과 여성이 각 각 14.5%, 총 29.0%를 차지하며 전체 이용고 객의 약 3분의 1을 차지했다. 11월 한 달간 30~35세 평균 비중이 20.6%인 것에 비해 8. 4%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특히, 30~35세 여성 이용고객은 11월 평균 8.6%에서 블랙프라이데이에는 5.8%포인트 오르며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연합뉴스

8,435,050 묘소재. 공유자김

태균지분1/4전부

신용카드사들이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휴면 신용카드를 일부러 소홀히 다루는 '꼼수'를 써서 고객 수를 유지하다가 금융감독당국에 무더기로

자동해지제도 고지 안해…연회비 자동 이체도 상당수

7일 신용카드사들과 은행권에 따르면 금융감독 원은 최근 휴면신용카드 자동해지제도 이행실태 를 카드사에 자체점검토록 한 결과 8개 신용카드 사에서 적발사례가 발견돼 즉시 시정토록 했다.

또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카드사에 지도공문을 발송하고 추후 검사때 이행실적을 점 검키로 했다.

8개 카드사는 카드발급신청서에 휴면신용카드 자동해지제도에 대한 안내사항을 기재하지 않거 나 해지대상 회원에게 '신용카드를 다시 발급받으 려면 번거로운 절차와 엄격한 자격심사를 받아야 한다'라는 문구를 삽입하기도 했다.

카드사들은 휴면신용카드가 많아질수록 시장 점유율이 하락하고 실적이 나빠지는 것을 피하려 고 이러한 꼼수를 부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매 각 물 건

금감원 관계자는 "휴면신용카드 중에는 매년 연회비가 고객 계좌에서 빠져나가는 것도 상당수 로 추정된다"면서 "또 고객신용정보의 남용 가능 성, 신용평가 악영향 등의 우려가 있는 만큼 장기 간 사용치 않는 신용카드는 해지하는 게 좋다"고 권고했다.

현행 휴면신용카드 자동해지제도는 금융기관 이 1년 이상 이용실적이 없어 휴면 상태로 분류된 신용카드에 대해 1개월 내 서면 또는 전화로 신용 카드 회원에게 계약해지 또는 유지 의사를 확인토 록 하고 있다.

의사 확인 과정에서 회원의 유지의사를 통보받 지 않으면 신용카드는 사용이 정지된다. 이후 3개 월간 해제신청이 없으면 카드는 자동으로 계약 해

여신협회와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9월말 기준 으로 9개 전업계 카드사와 11개 은행이 발급한 신 용카드는 9294만장이며 휴면카드는 952만2000장

자동차매매상사

13,849,200 매각외타인소유건

■ 주간 증시 포커스

美경기회복・中경기부양 코스피 완만한 상승세 연말 高배당주 관심을

동장군과 함께 12월이 시작됐다. 첫째주 주 식시장은 유가급락 여파와 중국과 유럽의 경제 지표 부진, 일본의 신용등급 강등 및 엔화약세 등 대외변수는 매서운 추위처럼 투자심리를 얼 어붙게 했였지만 외국인의 지속적인 매수세에 힘입어 전주대비 코스피지수 1986,62P(0.29%), 코스닥지수 550.85P(1.06%) 상승세로 마감했

최근 국내주식시장의 변동 요인으로, 각국의 경기 부양 정책을 들 수 있겠다. 지난달 중국은 경제성장율이 우려보다 더 악화하고 있다고 판 단하여 2년4개월만에 기습적으로 금리인하를 단행하면서 전세게 환율전쟁에 가담하게 되었

또한 유럽중앙은행(ECB)이 시장에 기대한 경 기 부양책을 내놓지 않았지만 내년 초 국채매입 가능성을 시사하는 소극적 경제정책을 발표했 고, 국내는 정부 예산안 통과 이후 재정정책의 기대감과 가계소득 증대 세제에 대한 3대 패키 지가 원안대로 통과되는 등 주요국의 경제정책 에 대한 민감도는 높아지고 있다. 이처럼 대외변 수의 불확실성은 당분간 상승탄력을 제한하는 요인이 될 전망이다.

이번주에도 대내외적으로 관심을 가져할 이 벤트가 산적해 있다. 중국의 내년 경제정책 방향 을 결정하는 중앙 경제공작회의(9일예정)에서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하향조정할 것으로 예상 된다는 점도 국내 경기민감주들의 주가 변동성 을 자극할 소지가 있다.

그리고 14일 일본의 조기총선을 전후로 아베 노믹스에 대한 논쟁으로 이어지면서 엔달러 환 율이 추가 약세를 이어갈 가능성도 투자자들에 게는 부담이 아닐 수 없다. 또한 미국, EU의 경 제제재 및 유가하락이 러시아 경제를 더욱 어렵 게 하고 있어 새로운 대외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 리 결정을 앞두고 있다. 시장에서는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지만 디플레이 션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금리인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그리고 12월 선물옵 션 동시만기를 앞두고 어떤 형태로 진행될 것인 가 관심이 크지만 연말배당에 대해 투자심리가 개선되고 있어 지수하락을 방어하는 완충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보인다.

또한, 뉴욕증시가 고용지표 호조로 인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미국의 경기회복세가 더욱 확연해지고 있고, G2의 한 축인 중국이 경기부 양으로 정책이 선회하고 있다는 점은 글로벌 경 기회복 기조에 대한 신뢰감을 지속적으로 높여 주는 요인이 될 전망이다.

따라서, 국내주식시장의 완만한 상승세가 이 어질 가능성에 대비한 투자 전략 및 연말 배당과 실적 개선주에 대한 국한된 매매전략이 바람직



김경신 〈우리투자증권 수완지점 부장〉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1.매각물건의 표시 및 매각조건

2014타경

12802

사건번호		매 각 불 건	감정평기역	95.36	
	물건 번호	~ W N W W M M I III 1	8 도	최저매각가라 [단위:원]	81.72
[아파트					
2014타광 12857		여수시 쌍봉로 366, 6동 15층 1505호 [문 덕동,총암미팽하이츠아파트] 84.95㎡	아파트	98,000,000 98,000,000	
단독주	택,	다가구주택]			
2014타경 11755	1	여수시 남면 화태리 132 349로	CI	12,778,000	일괄매각.제시외
		여수시 남면 독정길 3-5 45㎡ 부속건물 놈 업생산시설19.3㎡ 제시의 참고 등 15.6㎡	단독주력	12,778,000	건물포함
2014타명 13027		보성군 특량면 예당리 442-8 98㎡	O .	39,449,600	일괄매각,제시외
	1	보성군 독량면 예당증양길 9-2 58.5㎡ 제 시외 주방 16.8㎡	주택및정 포	39,449,600	건물포함
2014日日 13577	1	광양시 충동 1452-3 238.5㎡ 제시의 주택 일부 등 33.4㎡	Q		일괄매각.제시외 건물포함.목록2용
		광양시 구마7길38 1층48.00㎡ 2층116.14㎡	주차장등		도:2층단독주백
2014日日 13843	_	보성군 문덕면 용암리 717 479㎡	CF .		일괄매각.제시외
			단목주목	36,349,400	건물포함
[대지/8	101	/전답]			
2014타경 3631	1	고흥군 도양읍 장계리 산282 4959박	임이		공유자우선매수신 고는1회에한량
2014타광 9424	2	순천시 별량면 두고리 502-3 1028㎡	답	41,541,600	일괄매각,농지취
		동소 503 3157㎡	답	41,541,600	득자격증명요
2014EF∂l 11755	2	여수시 남면 화태리 394 210章	전		일퍑매각,농지취
		동소 394-1 679㎡	천		독자격증명요
	3	동소 산86 2319㎡	엄야	3,014,700	
2014E) ≥i		고흥군 동강연 장덕리 86-1 12131#	암야	8,435,050	일글때각,현황분

동소 86~2 846㎡ 옮건번호1:공유자무선애 임이

수신고1회에한함]

사건번호 물건 최저메각가격 비고 8 도 소재지 및 면적[#] 고흥군 동강면 장역리 93-1 800㎡ 8,324,000 일괄매각, 동지취 8,324,000 독자격증명요 동소 100 460㎡ 고흥군 포두면 상대리 1377 645㎡ 2,580,000 농지취득자격증명 2014타경 2,580,000 ♀ 12802 고총군 동강면 오웰리 산202 7339배 21,529,450 일괄매각.목록6,8 통소 산233 1190㎡ 21,529,450 현황분묘소재. 공 동소 산239 10034㎡[물건번호4:공유자우선 임이 유자김태균지분2 매수신고1회에한함] 분의1전부 구례군 구례읍 산들리 96-3 592㎡[수목포 24,700,000 농지취득자격증명 항,매각와제시외건물소재] 24,700,000 9 보성군 문덕면 용망리 752 390㎡ 5,421,000 매각외재사외건물 5,421,000 있음 13843 몸소 652 841㎡ 5,704,900 농지취독자격증명 5,704,900 요 여수시 광무동 353-5 60# 24,000,000 매각제외제시외건 2014EF3 24,000,000 물있음 13959 여수시 화양면 서촌리 775-1 86㎡ 4,644,000 명각제외제시외건 4,644,000 量划容 고흥군 포두면 남성리 124-9 12㎡ 4,345,600 일괄대각. 목록1현 동소 124-13 286㎡[현황일부도로] 4.345,600 황도로 보성군 노동면 옥마리 158-1 833㎡ 15,226,000 일괄대각.매각제 동소 165 595㎡[물건번호2:수목포함] 14068 15,226,000 외제시외건물있음 사용본거지:여수시 미평남1립 42 [미평동] 자동차 11,000,000 보관장소: 순천시 2014EFF 11,000,000 가곡동985-3순천 등록번호:25두7382 차명:아반떄[AVANTE]

삐 부속건물 화장실1.20㎡[건물만의매각] 13,849,200 물있음

순천시 장천2긺24 2호 82.11㎡[현황141.6 수리점

광고된 부동산의 단적 표시는 실위적 다소간의 와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타]

하고 할 때에는 파수신용보충권을 반된하지 않고 이를 때당시 때라다군에 산입한다. ① 공유자의 우선에수권[인사집행보 제140조] 형시에 따른 매수신고가 매수보충급의 미남으로 싶弃되는 경우 그 공유자는 그 이후 해당 부동 산성 의국에서는 유선에수권을 회사할 수 있다.

매각기일 : 2014 매각결정기일 : 2014, 12, 22, [18] 10:00

① 입혈법점에 비치는 기열입절표에 사건변호, 검찰자의 성영, 주소, 입찰가격, 보증공의 등을 기계하고 날인하여 보증균을 함쳐 입찰보투에

(U) 집합합니데 미지된 기업집합된다 사건민요, 경찰자의 경쟁, 주소, 검찰기에, 조망경에 등을 기사에고 알면이에 포함되는 함께 되합하는 실어 입찰함에 투입하면 됩니다. 메수스템의 방법으로는 최고에라기계의 1월 [00세년에]에 해당하는 경찰기관 방법에 자기없수표 또는 현금 을 문제하거나 지금보증위하지까요 희명한 문제[발명 보증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⑤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경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유입합자목에에 자자의 자본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⑤ 원활동으로 무집이 관리되던 군비당 자출을 설시하여 최고의 가격으로 입물한 사용을 최고가메수신고인으로 통하고, 최고의 가격으로 의 형한 사람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영찰자들만을 생대로 추가입물을 실시합니다. ⑥ 최고기에수신교인과 자소목에는신교인을 제외한 다른 메수신원인들의 매수신원보증관은 급활용자가 종결되는 즉시 반은됩니다. 6. 매각허가 및 대급납부 ① 최고의 가격으로 압찰한 사람에 대하여 화걱결하기일에 매각하기 이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매각하기결에이 목표되면 대한지급기반자

지 매작대경을 날부하여야 합니다. 대공지금기원은 동생 매작하기골장이 확장된 날부부터 1개월 이내로 지정됩니다. 한 지정된 대공지급기항까지 매작대공을 날부하지 아니라면 첫때작을 실시합니다. 다만, 제매각기원부 지정된 날의 5월전까지 통전 매수언이 테라다군 및 지연이자, 비용을 남부하면 다금남부모서 유효하며, 뜨라서 제매각은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① 또라다금을 남부줬으로써 말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대수인에게 이전되다. 각종 처합군, 가압부동은 소봇에 근계없이 등학적으로 소염됩니

다. 소유한이어들가 및 자항됐어나 가입되어 보스듬기를 위해서는 등록보면 지방고리처를 보보한 후 등록보여수등확인 및 토로제방수등록 지시를 통부하고, 국인주학과전발했으로 가자한 산동시를 비싼데 지출하면 합됐어 또 음기를 촉박하여 합니다. 한 매각다르는 남부하철때문도 불구하고, 청구자, 소유자 또는 대충학리한 박동산 문유자가 매수인에게 부음산을 인도하여 주지 머니라면 법 등에 있도생용을 산용할 수 있습니다. 8. 주의사항

① 매격된 주백 또는 삼가건들에 최선순위의 저당권 등이 설정된 날짜보다 먼저 주만등록권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고 있는 성자인이나, 사업 자용해산하다 미친 영화인이 입을 때에는 그 영화보증공을 때수인이 단수하여야 하는 경우가 해갈 수 있습니다. ① 일반단물의 열광에 재공하기 위하여 매작기일 1주일 전부터 매작물건 영세시, 현황조사보고서 및 평가서의 사본 등을 우리범된 만사引해! 신청[고매 비회하여 열광에 제공하고 있으므로 미리 필요한 경상을 얻으신 후 입물여부를 한단하시기 바랍니다.

① 특별대각조건의 내용은 폐각물건명보서의 열람을 흥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③ 합설법하여 나오실 해하는 집절되도 기자 및 집원보증라의 변환에 용요하다나 신분증과 도경을 가자고 오시가 바라며, 와인의 대리바으로 입호했더고 하는 사용은 안권증업을 동부한 위점을을 받는지 입합되고 함당 자물하여야 합니다. 및 소용인이전에 농자하다자계층점이 근거되는 농지한 경우에는 리그가네소산고한다면 본 경우 대국경증기업까지 농자하다자계층점을 자물하여야 매자이 해가됩니다. 단,대지이용국회학안시 등에 의하여 농지하다자계층점이 동교하지 않았다 소명된 경우에는 데국이 하기를 수 있

③ 공고란 물건중에 대작기일 전에 경태신용이 위하되거나 경험이 취소 - 경자된 경우, 또는 제작기업이 변경된 경우에는 병도의 공고 밖에 ① 선문에 공고되는 물건은 최초의 대각기일에 해당되는 물건이며, 숙행사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분공고를 하지 않으므로 우리범죄 계시한 後 명각대권을 남부하기 전화자 화무자가 화무를 변평하면 태각이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이태에는 태수선들인이 제출한 매수선질보좌를 반

환합니다. 핵작가열 광고의 요지는 대법은 출범이지에서 열광할 수 있습니다. 주소 : http://www.courteuction.go.kr/법단공고 - 법문관등당선에] 또 대법은 출범에지에서 광고내용외의 열광 개원한 정보는 법률상 제공하도록 원하여자 있고 대내는 것을 국인관의를 위하여 따로 제공한 것으로서, 혹시 그 문에 사실을 다른 내용이 있다라도 이를 이유로 원각합기 산물이나 참고, 대급광역선장이나 순행비상의 용구를 할 수 잃으므로, 관심있는 불건에 관하여는 반드시 법병에 나오셔서 개시된 대학기일의 공고나 반지된 대학불건명세서 無量 직접 확인하신 후 집

2014. 12. 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사법보좌관 모창환